

출근길, 승용차 FM 라디오에서 낯익은 가락이 들린다. 외국 노래여서 가사는 알 수 없지만...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무릎 꿇은 일본왕

실화다. 사실 일본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일상사이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속내가 다른 것이...

서 고개를 뺏뺏이 쳐들라고 강요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타도의 대상이라고 부추킨다.

가을에 벼들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다투어 머리를 숙여 온 들밭을 보면 마치 좌선삼매에 든 선객들을 보는 듯 하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진정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위로를 베푸는 지도자가 그림자.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세상살의 대부분은 지도자, 가진 자, 아는 자, 어른된 자의 책임이다.

'네트워크' 예단 열을 올리는 세상, 화합과 사과에 인색한 인식, 상대를 향해 쏘아댈 화살만 버리고 있는 이 나라의 풍경을 바라보니 일왕의 행동이 무겁게 다가온다.

자신을 낮추는 일은 어렵다. 알음알이와 지위와 아성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참치려 날을 버려



불자의 눈

조계종이 내년도 예산에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다. 1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는 승려 노후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에도 부족할 것이지만...

승려 노후복지 그 '깊은 뜻'

그런데 이제 정작 이 문제를 종단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하는 시점에서는 그 동안 승려들 노후복지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소들이 도리어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공적인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기존의 방식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상적인 틀을 만들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결코 용두사미식으로 끝나서는 안될, 한국불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엔 철저한 계획과 불퇴전의 추진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들었다 국가대표급 폭력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써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보호하라.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국가대표 선수단 내에서 자행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여자 빙상 쇼트트랙 선수들 6명이 지난 11월 9일 선수촌을 이탈, 코치와 감독들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한 선수는 "○○○선생님께서 ○○○선수 영명이를 스케이트 날집으로 업쳐 세계 마구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혀 쥐어 흔들리고 있으면 여자로 태어나 머리채 긴 게 원망스러운 적도 많았습시다"라며 모멸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지나친 '승려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1등만 하면 된다, 좋은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논리 승부의식이 연약한 여자에 대해서도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어찌구무 없는 생각으로 변질된 것이다.

부처님은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다.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이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강유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귀한 자리 관심부족 아쉬워

11월 9일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한 불교·개신교·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별 여성신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다녀왔다.

개신교와 기독교 두 종교는 불교에 비해 포교나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적극성을 갖고 있는데도 발표하는 자세 등 모두 수준급 이상이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그들의 종교관으로 보나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교육은 어쩌면 필수적인지도 모르겠다.

발표를 위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진지한 발표도 들어올수록 흥미가 많지 않더라.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일까?

불교측에서 모처럼 마련한 귀한 자리에 귀담아 들어올 참석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받아야 한다"는 원불교 교무의 신랄한 지적이 가슴에 남는다. 어찌 승려들 탓만 있겠는가? 사부대중 모두가 반성하고 반발해야 할 것 같다.

'빈그릇 운동' 활성화 됐으면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요즘 불교 사회단체들이 '빈그릇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서 '깨끗이'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우리 밥상문화에는 '체면치레'라는 것이 있어 배가 부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음식을 남기는 경우도 많다.

'빈그릇 운동'은 왜 자원이 얼마나 보충될 수 있는지 그 효용가치를 알리고 이로 인해 절약될 수 있는 자원의 액수를 추산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 수 있는 근원이 다른 생명의 '보시'

에 있음을 깨닫고 어떤 음식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마음이 집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러 단체와 음식점, 그리고 불자들의 실천을 통해 빈그릇 운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

교구본사 지역불교발전 나서야

조계종 교구본사는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게 포교와 사회활동에 나설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우선은 예산을 대사회활동과 포교분야에 더 배정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현안이 생기면 목소리를 보태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야 지역의 중심사찰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지방자치제와 주5일제로 인해 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 포교 호기를 맞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교구본사가 있다.

연대 만평 500 For 500. 눈을 더 크게 뜨겠습니다. 심민섭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전분에 한하여 심마니 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www.yongkungsa.or.kr